



서울중심街路 대대적成形

休息 공간 넓히고

国際都市 면모 새롭게

서울시는 88올림픽에 대비,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을 재현하고 가로미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종로·종로·율곡로·강변고속도로·올림픽 가로등 5개 가로변 17군데에 역사공원·조각·상징탑·분수대 등 환경조형물을 설치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서울시가 마련한 올림픽조형물 설치계획에 의해 밝혀졌는데 현재 시행중인 창경궁복원 덕수궁개수등 고궁복원작업과 맞추어 도심에 서울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넓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그 기본골격이다.

서울시의 세부계획에 따르면 ▲역사·전통구역인 중앙청 광장에는 문화공원을 조성, 야외민속 전시장을 개설하고 ▲시청앞 광장에는 올림픽카운트다운 상징탑을 ▲김포공항 확장 부지엔 서울상징탑과 서울모형공원을 세우기로 했다.

시는 또 율곡로의 창덕궁 담장 주변에 역사소공원을 조성, 조선조왕실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한편 종묘앞 광장, 보신각, 남대문, 광화문 4거리, 잠실올림픽경기장, 삼성동 종합전시장 주변등에 이들 시설을 상징하는 대형 환경조형물들을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로변의 녹지공간 및 공원부지 등을 市費로 확보하고 환경조형물 등은 民資를 유치해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조각작품 등을 현납받아 가로변에 설치키로 하는 한편 조각작품 밑에 현납자의 이름을 새겨 넣기로 했다.

올림픽조형물圖面 일람표

도면 번호	위 치	내 용
①	광화문 4거리	가로공원및조각
②	시청앞 광장	올림픽 카운트다운 상징탑
③	남대문 주변	가로공원 및 조각
④	보신각 주변	"
⑤	종묘 앞	휴식공원 및 역사조형물
⑥	동대문 주변	역사휴식공원및 벽화장식
⑦	중앙청 광장	문화공원 및 야외 민속전시장
⑧	안국동로타리 주변	전통민속상가
⑨	창덕궁 주변	역사소공원 및 광장
⑩	김포공항 확장 부지	서울상징탑 및 서울모형공원
⑪	양화교 인공폭포주변	조각 및 조명
⑫	강변 고층 아파트	벽화장식
⑬	청담교 주변	올림픽타운 상징탑
⑭	강남역 4거리	가로공원및조각
⑮	한국 종합 전시장 주변	올림픽타운진입아치 및 분수대
⑯	잠실 종합 운동장 주변	종합안내전광판 및 아시안게임기념조형물
⑰	잠실 4거리 주변	線型분수대설치

永東, 오피스타운浮上 10層이상建物 서울全體의 12.3%…36동

서울의 대표적 신시가지인 영동지역의 건물이 근래들어 점차 고층화·대형화 되면서 영동지역이 새로운 오피스타운으로 변모돼가고 있다.

영동지역은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넓고 반듯하게 짜여진 도로망에다 잘 정비된 도시환경으로 서울의 대표적 주거·상업·유통지역으로만 정평이 나있었지만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심 기능의 다핵화 현상이 이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 근래들어서는 중구·종로·여의도 등과 함께 서울의 손꼽히는 오피스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영동지역에 들어서 있는 10층 이상의 기존 고층건물은 19개가 있는데 신축중인 17개의 10층이상 건물을

합치면 모두 36개로 서울 전체지역의 10층이상건물 2백91개중 영동지역이 12.3%나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오피스타운인 중구·종로·여의도지역은 거의 개발이 끝나 앞으로 계속적인 고층건물의 신축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영동지역은 아직도 고층건물을 지을만한 대로변의 부지가 많이 남아있어 향후 5~6년 안으로는 이 지역이 고층건물의 숫자나 연건축면적으로 보아 서울의 대표적 오피스타운으로 자리를 굳힐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곳에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관공서나 업체등의 입주가 크게 늘어나 영동지역의 오피스타운으로서의 기능은 하루가 다르게 확대돼가고 있다.

특히 지하철 2, 3, 4호선이 영동지역을 관통해 교통이 편리한데다 4대문안 도심의 고질적문제인 주차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4대문안 도심 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영동지역이전에 촉진제가 되고 있다.

거기다 건물의 임대료도 도심지역보다는 훨씬 싸 현재 4대문안 도심지역 소재 환경이 좋은 건물은 대개가 평당 임대 보증금 30만원, 월임대료 3만원 수준이지만 영동지역에서는 평당 임대보증금 15만~18만원, 월임대료 1만5천~1만8천원 수준으로 도심지역의 약 반정도 수준이다.

현재 이 지역에 신축중에 있거나 공사가 끝나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건물들 가운데는 기존건물보다 높은 것들이 많아 논현동 71의 2에 짓고있는 건설공제조합건물은 지하3층, 지상20층 규모의 대형건물이고 이밖에 역삼동 832의 2에 신축중인 한일시멘트사 옥은지하4층 지상18층, 서초동 산58에 정철신씨가 짓고있는 판매 및 업무용 건물은 지하3층 지상18층에 연건평 7만1천 3백63m²(약 2만1천6백평) 규모의 대형건물이다.

역삼동 823에 건립중인(건축주 金상호) 지하5층, 지상20층 규모의 사무실 건물도 이곳에 짓고있는 대형건물중의 하나다.

建築계획학정 곤着工

公平구역 19지구등 4 개都心再개발지구

화신백화점 부지인 공평구역 19지구등 4 개도심 재개발지구의 건축계획이 확정돼 빠르면 올안에 각각 착공된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된 이들 4 개지구는 대지내에 녹지를 많이 확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설계됐으며 도로 및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한게 특징이다.

◇ 공평구역 19지구

종로구 공평동74일대 화신백화점등 을 헐고 18층짜리 업무 및 판매용 건물을 새로 짓는다.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확장계획선에 맞춰 종각 맞은편쪽으로 광장을 넓히고 1천 7 백80m²의 시민휴식공간 등을 마련한다. 연면적은 4 만 8 천16m².

이곳이 정비되면 서쪽의 제일은행 본점사옥 재개발과 함께 4거리 주변의 경관과 기능이 높아지게 된다.

◇ 서소문구역 4지구

중구 태평로2가 120일대 상공회의 소 북쪽에 자리한 이곳은 대왕홍산이 사업시행자가 돼 20층짜리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다.

연면적 4 만 7 천 6 백45m²의 건물이 들어설 이곳은 공공 용지를 전체대지의 22%인 2 천49m²나 확보, 남대문주변 불량건물 정비 및 광장조성등에 큰 몫을하게 된다.

◇ 회현구역 4-1지구

중구 회현동20일대 퇴계로 고가도로변에 밀집된 낡은 건물을 헐고 연면적 5 만여m²의 20층짜리 사무실용 건물을 세운다.

도로계획선에 맞춰 퇴계로를 확장하고 1 천 5 백m²의 녹지공간이 확보된다.

◇ 동자동구역 8지구

용산구 동자동 35일대 남영동~서울역간을 잇는 간선도로변에 20층짜리 업무 및 판매용 건물을 신축한다.

당초엔 2 개건물을 지을계획이었으나 1 개건물로 키워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대지내 녹지면적을 1 천 7 백50m²로 2 배정도 늘렸다.

鐵物종합商街 20채 건립

연건평 3만坪 3층짜리
年內착공·내년 7월완공

구로구 시흥동의 중앙철제 종합 상가는 을지로4 가·주교동·산림동등지 서울 도심에 밀집돼 있는 영세 상인들이 스스로 집단이전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상가권을 조성하는 곳으로 규모가 커 관심을 모은다.

새상가가 들어설 시흥동966 일대의 부지면적은 3 만 5 천 8 백64m²(1 만 8 백49평) 연건평 2 만 9 천 7 백36m² (8 천 9 백95평)에 지상 3 층 지하1층짜리 상가 20개동이 건립되며 주차장과 기타부대시설이 만들어진다.

건축면적만도 1 만 7 백12m²(3 천 2 백40평)에 이른다.

내년 7 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8 월 15일께 개장된다.

총 사업비는 74억 3 천 2 백만원으로 이중 대지매입비가 25억 2 천 7 백만원이고 건축비가 47억 3 천 7 백만원, 기타 비용이 1 억 6 천 7 백여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78년 7 월 을지로4 가 일대의 철제상가를 도심부적격시설로 판정한지 만 6 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신축될 중앙철제상가의 점포수는 모두 2백32개소, 을지로4 가 산림동·주교동 일대의 철제 소·도매상 1 백 6 개상에 우선적으로 입주권이 주어진다.

나머지 점포는 타지역 철제 상들에 분양된다.

현재 을지로4 가 등 일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을 취급품목별로 보면 철골 27개소, 원강 14개소, 철판 21개소, 철관 16개소, 철근 6개소, 가공 7개소, 기타 15개소 등이다.

이 종합상가는 을지로4 가 일대의 철제상들을 완전 흡수시킴으로써 서울 지역의 철제상권의 도매기능을 30%

이상 흡수하게되며 경기·충남북도등 중부권까지의 도매기능을 커버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들이 빠져나갈 을지로4가등 이전 지역에는 주차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 이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방향이나 토지주와 시 재정 문제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시의 방침은 이 일대를 복합건물이 증·개축되도록 유도, 아래층에는 생활필수품 판매시설이 들어서도록 하고 위층에는 사무실과 주거기능을 함께 넣도록 하는 것이다.

을지로4 가 등 기존의 철제상가는 6.25직후인 30여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들어서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해왔다.

이때문에 인도에 물건들을 내놓아 보행인에 불편을 주는 것은 예사이며 철제품을 차량에 실고 내리느라 도로의 차선하나를 차지, 하루종일 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빚어왔다.

뿐만아니라 철제품을 자르느라 심한 진동과 소음을 유발시켜 공해지역으로 지목돼 왔다.

建築基準法 全面改正

日 建築省, 土地高度利用 위해

일본건설성은 건축행정의 기본법인 건축기준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할 방침을 세우고 내년에 초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建蔽率, 容積率, 斜線制限 등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는 외에 ① 맨션 건설에 있어 日照權 제한의 완화, ② 市街地 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면적 완화, ③ 주거전용지구 내의 건물높이 제한완화, ④ 주택의 고층화 등을 실시하여 도시 재개발을 촉진할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가 서로 얹혀있는 것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너무 심한 규제는 완화하여 도시재개발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新規建築士 138명에 免許

建設部 30일자 면허番号등 公告

建設部는 10월 30일, 지난번에 実施한 建築士資格試験에 합격한 138명에게 건축사 면허를 수여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들 건축사의 면허번호와 성명은 다음과 같다.

免許番号	姓 名						
2 6 4 3	장 기 수	2 6 7 8	류 성 회	2 7 1 3	양 회 도	2 7 4 8	장 준 평
2 6 4 4	강 원 용	2 6 7 9	문 병 국	2 7 1 4	오 기 성	2 7 4 9	문 전 환
2 6 4 5	고 성 국	2 6 8 0	문 숙 경	2 7 1 5	오 은 택	2 7 5 0	웅 구 옥
2 6 4 6	곽 기 준	2 6 8 1	박 규 영	2 7 1 6	유 동 배	2 7 5 1	명 선 설
2 6 4 7	곽 성 문	2 6 8 2	박 동 식	2 7 1 7	윤 진 정	2 7 5 2	봉 정 철
2 6 4 8	권 익 대	2 6 8 3	박 석 흥	2 7 1 8	윤 완 정	2 7 5 3	상 정 길
2 6 4 9	김 대 근	2 6 8 4	박 성 규	2 7 1 9	윤 호 현	2 7 5 4	상 정 문
2 6 5 0	김 병 찬	2 6 8 5	박 승 규	2 7 2 0	윤 균 문	2 7 5 5	상 정 주
2 6 5 1	김 병 호	2 6 8 6	박 운 영	2 7 2 1	이 광 백	2 7 5 6	성 정 수
2 6 5 2	김 상 철	2 6 8 7	박 은 규	2 7 2 2	이 민 복	2 7 5 7	연 정 현
2 6 5 3	김 석 근	2 6 8 8	박 창 배	2 7 2 3	이 규 경	2 7 5 8	연 정 구
2 6 5 4	김 성 곤	2 6 8 9	박 태 수	2 7 2 4	이 복 도	2 7 5 9	종 대 수
2 6 5 5	김 성 일	2 6 9 0	박 현 철	2 7 2 5	이 석 경	2 7 6 0	대 조 조
2 6 5 6	김 성 호	2 6 9 1	박 혜 선	2 7 2 6	이 석 도	2 7 6 1	동 조 조
2 6 5 7	김 영 국	2 6 9 2	박 희 훈	2 7 2 7	이 성 결	2 7 6 2	인 조 조
2 6 5 8	김 영 육	2 6 9 3	박 승 중	2 7 2 8	이 성 원	2 7 6 3	항 조 조
2 6 5 9	김 용 준	2 6 9 4	방 승 대	2 7 2 9	이 익 재	2 7 6 4	영 주 주
2 6 6 0	김 용 화	2 6 9 5	방 영 태	2 7 3 0	이 인 쇠	2 7 6 5	강 최 최
2 6 6 1	김 인 수	2 6 9 6	배 준 기	2 7 3 1	이 인 콘	2 7 6 6	동 최 최
2 6 6 2	김 재 구	2 6 9 7	배 태 현	2 7 3 2	이 정 재	2 7 6 7	재 최 최
2 6 6 3	김 정 훈	2 6 9 8	백 영 철	2 7 3 3	이 정 균	2 7 6 8	찬 최 최
2 6 6 4	김 종 국	2 6 9 9	백 종 현	2 7 3 4	이 정 재	2 7 6 9	학 최 최
2 6 6 5	김 종 옥	2 7 0 0	백 홍 수	2 7 3 5	이 종 윤	2 7 7 0	교 추 추
2 6 6 6	김 종 철	2 7 0 1	석 정 훈	2 7 3 6	이 종 택	2 7 7 1	연 추 추
2 6 6 7	김 종 헌	2 7 0 2	성 정 길	2 7 3 7	이 주 협	2 7 7 2	수 하 하
2 6 6 8	김 중 근	2 7 0 3	손 상 원	2 7 3 8	이 진 우	2 7 7 3	진 하 하
2 6 6 9	김 진 구	2 7 0 4	송 상 철	2 7 3 9	이 항 배	2 7 7 4	용 한 한
2 6 7 0	김 창 규	2 7 0 5	송 초 균	2 7 4 0	인 의 식	2 7 7 5	창 한 한
2 6 7 1	김 창 호	2 7 0 6	신 종 호	2 7 4 1	임 종 환	2 7 7 6	기 혁 혁
2 6 7 2	김 철 우	2 7 0 7	심 재 덕	2 7 4 2	장 구 일	2 7 7 7	기 혁 혁
2 6 7 3	김 학 중	2 7 0 8	심 재 호	2 7 4 3	장 기 종	2 7 7 8	황 혁 혁
2 6 7 4	김 현 규	2 7 0 9	안 재 옥	2 7 4 4	장 동 진	2 7 7 9	규 혁 혁
2 6 7 5	김 형 석	2 7 1 0	안 택 영	2 7 4 5	장 석 도	2 7 8 0	철 혁 혁
2 6 7 6	김 희 태	2 7 1 1	안 화 인	2 7 4 6	장 종 원		
2 6 7 7	류 대 현	2 7 1 2	양 광 명	2 7 4 7	장 준 원		